고난 중에 믿음은 태도로 드러난다

(사도행전 21:35-22:2)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쇠사슬로 결박하면서 성령께서 몇 달 전부터 예고하신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이 고난뿐만 아니라 성도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박과 환난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점 위에 서지 않으면 신앙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결박과 환난이라는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유대 군중과 산헤드린 공의회, 총독 펠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다섯 번의 자기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은 복음을 설명하는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향한 바울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그가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마흔 살이 넘은 나이에 대형 기획사 카피라이터에 지원한 최윤희 강사는 애꾸눈 임금의 성한 옆모습만을 그려 상을 받은 세 번째 화가의 일화를 자기소개서에 담아 1,331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절망과 희망, 아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인생 속에서 좋은 쪽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태도가 카피라이터의 역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 번째 화가처럼 선하고 긍정적인 진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중들의 무자비한 폭행을 피해 로마 군대 요새 안으로 급히 몸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피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어 허락을 구한 뒤 분노한 군중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세 차례의 선교 여행 내내 자신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매질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동족들을 향해 바울은 "부형들아"라고 부르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이는 고압적인 반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아버지에게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진실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 공모한 이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도 바울의 내면에는 반감이나 증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심과 애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원수 같은 이들에게까지 온화할 수 있었던 까닭은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영적인 정리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연약하고 못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평등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은 바울은 가해자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을 자신이 누리는 진리의 세계로 따뜻하게 초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흔들림 없는 태도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총독 펠릭스 앞에서도 바울은 도마 위에 오른 죄수가 아니라 마치 칼자루를 쥔 사람처럼 기쁘고 당당하게 변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펠릭스가 쥔 것 같지만 온 세상의 참된 권세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후임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도 그는 왕을 향해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왕이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며 불쾌해할 정도로 바울은 세상의 권세에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가치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며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은 세속적인 부와 번영, 혹은 성실함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프라우테스"입니다. 기질적인 유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통제된 강력한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전능한 힘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칼을 칼집에 꽂으시는 절제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세가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 앞에서 힘을 잃고 무력화되는 영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고 그를 비방하는 무리로부터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유한 자와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오해와 모함, 그리고 거센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최고의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악의적인 공격에도 결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끔찍한 폭력과 결박의 순간에도 원망 대신 사랑으로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과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온유함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